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기후 중립을 위한 10개의 기후 혁신 프로젝트

사회·복지 -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동자쉼터'
- 정신장애인을 위한 건강 회복 서비스를 사구마다 운영

사회·복지 - 노인 대상으로 디지털 도우미 지원 서비스

- 보조금 지원·인프라 개선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도시계획·주택 - 두 마리 토끼 잡는 전략적 중심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미국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황현	정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지은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일본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독일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정연주	

기후 중립을 위한 10개의 기후 혁신 프로젝트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시 / 환경·안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시는 탄소 중립을 위해 에너지, 교통, 물류, 기후 커뮤니케이션 및 기후 변화 등 4가지 주제에 따른 혁신적인 시민 아이디어를 10개 선택하여 추진. 지난 2022년 7월 슈투트가르트시는 유럽연합(EU)의 '기후 중립 2050'보다 앞선 2035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후 로드맵 2035'를 작성하여 기후 중립의 목표에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선별된 프로젝트들은 슈투트가르트 기후 보호 활동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후 혁신 기금으로 총 1,300만 유로(약 183억 원)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

기후 혁신 프로젝트 개요

- 슈투트가르트의 기후 변화
 - 독일 기상청은 슈투트가르트시가 독일 내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
 - 슈투트가르트시는 2050년까지 1년에 최대 70일 동안 기온이 30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8년 여름 30도 이상을 유지한 날보다 두 배 이상 많을 것이라는 의미
 - 계곡분지 형태의 지형적 특징과 밀집된 도시 개발은 도시 열섬 현상을 촉진하고 공기 순환을 어렵게 만듦
 -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겨울에는 최대 50% 더 많은 강수량과 훨씬 더 많은 폭우가 예상됨
- 기후 혁신 프로젝트의 목적
 -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자연 복원과 블루-그린 인프라(grün-blauer Infrastruktur) 구축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대를 강우를 자연적으로 모으고 도시 정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마련하여 도시 열섬 현상 방지
 - 자연 기반 해법(NBS-Naturbasierte Lösungen)을 기술·사회·행정·경제적 이슈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
 - 녹색 도시 환경을 위해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도심 농장을 통한 지역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등 새로운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기후 혁신 기금

- 슈투트가르트 기후 혁신 기금은 슈투트가르트의 선별된 혁신적 프로젝트를 지원
- 지속 가능한 기후 보호 구현을 위한 연구와 프로젝트 개발부터 실행까지 해당 기금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
- 다양한 기관과 단체, 기업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
- 신재생 에너지, 녹색 건축, 대중 교통 개선, 폐기물 관리, 환경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지원
- 이 기금은 1,300만 유로(약 183억 원)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의 지방자치단체 기후 혁신 기금 중에서 최대 규모임
- 현재 선정 단계에서 모든 자금 지원 라인의 프로젝트는 25,000~100만 유로(약 3,500만 원~약 15억 원) 사이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주요 내용

- 슈투트가르트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기후 보호에 투자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도시의 미래를 더욱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 2021년 슈투트가르트 기후혁신위원회는 시민이 제안한 39개 프로젝트 중 에너지, 교통, 물류, 기후 커뮤니케이션 및 영향 등 4가지 주제에 따른 10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했으며, 관련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에너지 넘치는 혁신과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추진력: 새로운 방법과 개별 분석 단계의 자동화를 활용해 일반적 방법과 비교해서 처리 시간을 평균 50%를 줄이고 동시에 20%의 이산화탄소(CO₂)를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컨설팅 4.0 프로젝트
 - 도시 내 지속 가능한 교통: 화물용 자전거를 사용한 이동식 수리 서비스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 도시 공간에서의 활동: 도시 생활 공간을 디자인하고 도시 내 공간의 지속 가능한 사용 등을 폭넓게 인식하는 것이 목표인 프로젝트(ARTUS²). 예를 들어 슈투트가르트시 정류장에 녹색 지붕(소위 'BeeStation')을 설치하여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고 도시 곤충에 대한 식량 공급원과 번식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후 변화 영향 대응에도 도움을 주고 빗물의 흡수와 증발 작용으로 여름에 과열된 도심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함
 - 도시 사회의 활성화와 민감화: 기후 보호 관련 모범 사례를 전달하고 기업의 경험을 교환하도록 돕는 P2P방식의 학습 방법 제공 프로젝트(Stuttgart KLIMA Thinking

Circles 프로젝트)

- 2023년 도시에 더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0가지 프로젝트를 추가 선정
 - ① 도시 녹지의 지속 가능한 관개와 새로운 형태의 녹지화 계획 과정에서 녹색 인프라 강화 관련 주제의 프로젝트
 - 산업지구 내 녹지 확충을 위한 파클렛 프로젝트(기존 차도 공간의 일부를 새롭게 디자인해 공공공간으로 이용하는 것)
 - 작은 숲 프로젝트
 - 탄소 격리, 공기 필터링, 수분 보유를 계산하고 다양한 나무 관리와 기후 시나리오 설계에 사용하기 위해 도시 나무의 환경 성능을 정량화하고 모델링하는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
 - 이동식 물 재이용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폐수 사용 리워터시티(Re-WaterCity) 프로젝트
 - ② 건축물 수리와 에너지 전환 관련 주제의 프로젝트들
 - 무료 디지털 건물 프로파일 제공으로 슈투트가르트 내 건물별 수리와 태양광 발전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공급하는 프로젝트
 - 다세대 주택 내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를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협상을 조정하는 프로젝트
 - 재미있는 인센티브 활용, 무선 기반 측정 기술과 건물 입구의 명확한 소비량 표시 등으로 임차인이 에너지를 의식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지역사회 지원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 ③ 교통: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 주제의 프로젝트
 - 스포츠 경기장, 테니스 코트, 기타 레저 시설 등의 위치를 식별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배터리 저장 장치 결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그리드 독립형 충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프로젝트
 - ④ 도시 지역 참여 확대 관련 주제의 프로젝트
 - 슈투트가르트 기후 시민 협의회를 위한 시민 카페 조성 프로젝트
 - ⑤ 재사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만드는 프로젝트
 - 케이터링 산업에서 포장의 재사용 가능 비율을 높이기 위해 투고(To-Go) 포장에 사용되는 재사용 가능 용기를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https://www.stuttgart.de/service/aktuelle-meldungen/september/landeshauptstadt-auf-dem-weg-zur-klimaneutralitaet-bis-2035.php>

<https://www.stuttgart.de/service/aktuelle-meldungen/juli-2023/stadt-foerdert-weitere-zehn-innovative-klima-projekte.php>

<https://www.energie-klimaschutz.de/gemeinsam-fuer-mehr-natur-in-der-stadt-einblicke-in-neue-kooperations-und-finanzierungsmodelle-aus-stuttgart/>

<https://jetztklimachen.stuttgart.de/klima-innovationsfonds>

<https://www.stuttgart.de/leben/umwelt/energie/foerderprogramme/solaroffensive.php>

정 윤 주 통신원, yoonjooo@gmail.com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동자쉼터’

중국 충칭시 / 사회·복지

충칭시는 고정된 휴식 공간 없이 일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쉼터를 2019년부터 운영하였음. 2023년 상반기에 새로이 82개의 노동자쉼터를 개소해 누적 1,32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에서 가장 많은 쉼터를 마련한 것임. 2022년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과 갈 곳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이용 대상을 넓혀 공익 쉼터로 발돋움함

중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쉼터 운영하는 충칭시

- 충칭시는 2023년 상반기 82개의 노동자쉼터(勞動者港灣)를 새로 마련해서 올해 전체 목표치인 150개의 절반 이상을 달성
 - 지난 1월에 충칭시 정부는 ‘2023년 민생실천 중점공작 목표임무(重點民生實事工作目標任務)’를 발표함. ‘민생실천 중점공작’의 15개 ‘목표임무’ 중 하나가 올해 내 150개의 새로운 노동자쉼터를 확충하는 것이었음
 - 충칭시는 도시 봉쇄 위주로 진행된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이 2022년 12월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하여 노동자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해 왔음
- 2023년 상반기까지 충칭시 전체의 노동자쉼터는 1,320개로, 중국 전체 31개의 성(省), 시, 자치구(自治區) 중 가장 많음
 - 현재 충칭시 관할 구(區)와 현(縣) 38개에 모두 노동자쉼터를 개소했고, 한 구와 현에는 많게는 40여 개, 적게는 20여 개의 노동자쉼터를 마련함
 - 이처럼 많은 노동자쉼터가 개소된 덕분에 충칭시에서 일하는 60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음

일용직, 비정규직,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의 휴식 공간

- 노동자쉼터는 일용직, 비정규직,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 원래 노동자쉼터는 2018년 광둥성 포산시의 한 은행이 공익사업 차원에서 사업장 주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교통경찰 등 공공부문 노동자를 위하여 휴식 공간을

마련하면서 시작됨

- 2019년 충청시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다른 지방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쉼터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음
- 충청시는 공공부문 노동자뿐 아니라 일용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사업장에 제대로 쉴 공간이 없는 노동자와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플랫폼 경제의 한 축으로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개인사업자까지 노동자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
 - 정규직 노동자는 직장 안에 식당, 탕비실,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용직, 비정규직,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는 고정된 휴식 공간이 전혀 없는 현실을 고려함
- 노동자쉼터는 광장, 공원, 공공주차장, 사구(社區)¹⁾위원회 등의 자투리 공간과 지하철역, 고가도로 밑 등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
 - 국영기업이 운영하는 은행, 상점, 마트, 숙박시설 등에도 관할 부서의 협조를 얻어 노동자쉼터를 확보
 - 현재 노동자쉼터 사업은 충청시 정부 도시관리국(城市管理局)과 충청시노동조합연맹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관리는 충청시노동조합연맹이 맡아서 하고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 2022년부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과 갈 곳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노동자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
- 노동자쉼터는 잠시 쉴 곳이 없는 일용직, 비정규직,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에게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원래 목적
 - 모든 노동자쉼터에는 정수기, 전자레인지, 휴대폰 고속충전기, 와이파이(Wi-Fi) 공유기 등을 완비하여 노동자가 도시락을 먹고 차나 커피를 마실 수 있음
- 2021년부터 질적 향상에 노력한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쉼터가 에어컨과 냉장고까지 갖춰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청소년 등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는 노동자쉼터 주변에 살면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과 갈 곳 없는 어린이나 청소년도 노동자쉼터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공익 쉼터로서의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음

1) '사구(社區)'는 중국 도시에서 가장 하부의 행정 단위로 한국의 '동(洞)'에 해당. 다만 중국에서 사구가 관할하는 면적과 인구는 한국의 3~5배로 넓고 많음



[그림] 휴식하기 위해서 한 노동자쉼터를 찾은 노인 부부 (출처: 상유뉴스)

<https://www.cqcb.com/county/yuzhongqu/yuzhongquxinwen/2023-07-23/5326074.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71923051550511807>

<http://www.cq.xinhuanet.com/20230713/edbf71144c1c4f91803832fa29861618/c.html>

http://wap.cq.gov.cn/zwgk/zfxgkml/lwlb/cqzxd/zcwj/202301/t20230116_11510003.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정신장애인을 위한 건강 회복 서비스를 사구마다 운영

중국 충칭시 / 사회·복지

2020년부터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충칭시는 올해 들어 전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센터나 데스크를 개소할 계획. 이는 4월에 발표한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의 중기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5년까지 전체 사구의 80% 이상, 향진의 50% 이상 개소와 운영이 목표임.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은 특히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는 점이 주목됨

정신장애인을 위한 건강 회복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 충칭시

- 9월 14일 충칭시 지역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 민정국¹⁾은 ‘충칭건강가정(渝康家園)’을 다른 직할시²⁾ 및 성(省)과 차별되는 정신장애인 사구³⁾ 건강 회복 서비스 브랜드로 키우고 있다고 밝힘
 - 이를 위해서 민정국은 올해 연말까지 충칭시 내 도시지역 800개 사구와 농촌지역 100개 향진(鄉鎮)에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를 개소할 계획임
 -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의 대외적인 명칭이 ‘충칭건강가정’임
 -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는 2020년부터 충칭시 38개 구(區)와 현(縣)에서 일부 사구와 향진에 시범적으로 개소하여 운영했는데, 2년여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여 올해부터 충칭시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함
 - 이에 따라 중구난방이었던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의 이름을 ‘충칭건강가정’으로 통일하고, 충칭만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건강 회복 서비스 브랜드로 키우게 된 것임
-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는 관(官)이 주도하지만 민(民)이 함께하면서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성을 갖추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체계임
 - 관할 주민이나 범위가 큰 사구는 센터와 여러 직원을 두고 있고, 대부분 사구는 데스크와 전담 직원 한두 명을 배치해서 운영

1) ‘민정국(民政局)’은 중국에서 모든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실행하는 지방정부 부서임. 중앙정부 부처로는 민정부(民政部)가 있는데,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업무,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중국에는 4대 직할시가 있는데, 수도인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임. 이 중 충칭만 유일하게 내륙에 자리 잡고 있음. 2022년 도시별 지역내총생산(GRDP) 순위는 상하이 1위, 베이징 2위, 충칭 4위, 톈진 11위임

3) ‘사구(社區)’는 중국 도시에서 가장 하부의 행정 단위로 한국의 ‘동(洞)’에 해당. 다만 중국에서 사구가 관할하는 면적과 인구는 한국의 3~5배로 넓고 많음

-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 행사, 이벤트 등을 벌일 때는 사전에 신청 받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
- 사례를 들면, 8월 원양(雲陽)현의 향진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는 민정국 혼인 등기처에서 혼인신고를 하러 온 이들에게 결혼을 축하하는 뜻에서 자원봉사자가 정신장애인과 함께 꽃다발을 전달함
- 이는 정신장애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동참시키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성을 기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하나였음



[그림] 혼인신고를 하러 온 이들에게 축하 꽃다발을 나눠 주는 자원봉사자와 정신장애인 (출처: 상유신문)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에 따른 사업

- 충청시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건강 회복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은 2023년 4월에 발표한 ‘2023~2025년 충청시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에 따른 중기적인 계획과 목표에 따른 것임
-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은 충청시 민정국, 재정국, 위생건강위원회, 장애인 연합회와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를 운영했던 구정부가 마련한 2025년까지의 중기 목표이자 실행 스케줄
 -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국이, 현장 의료보건의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생건강위원회가, 정신장애인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연합회가,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를 운영하는 당사자 입장을 듣기 위해서는 구정부가 참여한 점이 독특함

-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체 사구의 80% 이상, 향진의 50% 이상에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의 개소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장기간 사회생활을 거부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대책임
 - 아직 정식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고 보고 이들의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조
 - ‘은둔형 외톨이’를 계속 방치하면 가족과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고 사회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https://www.cqcb.com/yukuaibao/2023-09-14/5373397_pc.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68766185828467633>

<https://baijiahao.baidu.com/s?id=1763849033696334656>

<https://www.cq.gov.cn/index/detail.html?policyId=4506>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노인 대상으로 디지털 도우미 지원 서비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시 / 사회·복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시의 사회 복지 사무소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통신국은 현재 약 100명의 숙련된 사람들이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하는 노년층이 디지털 세계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도우미 지원 서비스 개요

○ 배경

- 슈투트가르트시의 인구 고령화로 노년층이 은퇴한 뒤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의 필요성 대두
- 슈투트가르트시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진보적인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공간의 디지털화를 통해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시민이 스마트 시티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사회 내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민 서비스가 요구됨

○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모든 시민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두는 높은 삶의 질과 사회 서비스를 위해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결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깨달음
- 따라서 디지털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 슈투트가르트의 활기찬 지역과 이웃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솔루션으로 현장 서비스를 보완하여 더 많은 접촉 기회를 창출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함
- 디지털화를 통해 특히 노인 세대에게 가족과의 화상통화부터 온라인 쇼핑, 의사와의 디지털 상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 내용

- 슈투트가르트시는 도시 발전과 기후 보호에 투자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도시의 미래를 더욱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목적을 설정함
- 노년층의 디지털 활용과 사회 참여를 돕는 전문 부서인 슈투트가르트시 사회복지국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 노년층의 스마트 기기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미디어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사회복지국은 주립 커뮤니케이션 연구원(LFK; Landesanstalt für Kommunikation Baden-Württemberg)과 협력 프로젝트 ‘디지털과 함께(Digital dabei)’를 진행하여 노년층의 디지털 기술 증진을 위한 올바른 기초를 다지고자 함
- 이를 위해 ‘디지털과 함께(Digital dabei)’ 앱과 디지털 관련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자료집을 활용해 미디어 기술을 가르치고 디지털 도우미의 주요 업무를 지원
- 슈투트가르트시는 현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의 디지털센터에서 노년층에게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돕고 있음
- 디지털 도우미를 위한 자료와 교육
 - 노인 디지털 및 사회 참여 센터는 협력 기관과 함께 ‘디지털 도우미’에게 포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
 - ‘디지털과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주립 커뮤니케이션 연구원과 함께 노년층에 맞춤형 교육 자료를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 커뮤니케이션 연구원(LKF)의 학습 앱 ‘스타트힐페(Start-hilfe)-디지털과 함께’를 기반으로 ‘디지털 도우미’를 위한 포괄적인 스타트업 패키지 자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
 - 해당 교육은 소규모 워크숍 형식으로 참여 시민들은 스타터 패키지 플랫폼의 구조와 노년기 학습의 특징이나 학습 그룹의 조절과 같은 기타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음
 - 2023년 봄/여름에 총 25명의 ‘디지털 도우미’가 참여한 두 개의 교육 과정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2023년 가을/겨울에 두 번의 교육이 더 있을 예정
 - 2023년 가을부터 전문 디지털 교육자를 위한 새로운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이 열릴 예정
- 노년층의 디지털 세상 진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참여를 강화하여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유능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2년의 프로젝트 기간에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디지털 기술 능력을 강화하여 이들이 다시 노년층에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도록 함
-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 발표는 2023년 12월에 열릴 예정

<https://www.wissensdurstig.de/>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digitale-teilhabe-aelterer-menschen-staerken-186032>

<https://www.bgneuesheim.de/newsreader/digital-im-alter.html#:~:text=Unter%20dem%20Motto%20%E2%80%9EDigital%20im,wieder%20mit%20der%20Digitalisierung%20konfrontiert.>

<https://www.lfk.de/medienkompetenz/seniorinnen-und-senioren/digital-dabei>

<https://www.stuttgart.de/service/aktuelle-meldungen/august-2023/digital-dabei-engagierte-unterstuetzen-seniorinnen-und-senioren-beim-einstieg-in-die-digitale-welt.php>

<https://www.stuttgart.de/leben/soziales/beratung-und-hilfe/digitale-teilhabe.php>

<https://digitalsenioren.de/>

정 윤 주 통신원, yoonjooo@gmail.com

보조금 지원·인프라 개선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말레이시아 페낭주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 페낭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5년까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미래 비전으로 삼고, 노인 현금지원 정책과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행해 다각도로 고령층의 복지에 기여

배경

-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문제
 -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페낭주의 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9%로 말레이시아에서 페락주(15.3%)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
 - 2018년 기준 페낭주의 출산율은 1.3명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
-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
 - 말레이시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근로자 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¹⁾에 따르면 가입자의 70%는 연금 수령 후 10년 안으로 연금을 모두 소진
 - 말레이시아 재무서비스 홈페이지 링깃플러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국민의 70%가 월 500링깃(약 14만 원) 이하를 저축하는 것으로 집계
 - 2021년 11월 기준 근로자 공제기금 가입자 1,521만 명 중 360만 명은 연금 1,000링깃(약 27만 원) 이하를 보유해 은퇴 이후 연금으로 최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
 - 2018년 페낭주는 페낭2030비전(Penang 2030 Vision)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도시 미래 목표로 설정
 - 2023년 페낭주는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 지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발표

1)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 근로자는 월 급여의 최소 11%, 고용주는 최소 12%를 납부하며 55세에 수령 가능함(2010년 이후 출생자는 60세에 수령 가능)

-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고령층 복지정책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 내용

- 아이세자트라(i-Sejahtera) 프로그램
 - 페낭주 정부는 2022년 12월 고령시민연합회(Senior Citizens Association, SCA) 40주년을 맞아 2023년 아이세자트라 프로그램에 5,300만 링깃(약 150억 원)의 예산 할당
 - 페낭주 정부는 말레이시아 건강한 노화 사회(Malaysian Healthy Ageing Society), 페낭여성개발위원회(Penang Women's Development Corporation)와 협업
 - 아이세자트라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미혼모, 2세 이하 아동,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연 150링깃(약 4만 5,000원)~200링깃(약 6만 원)을 보조하는 복지정책
- 시니어 시티즌십 어프리케이션 프로그램(Senior Citizenship Appreciation Programme)
 - 페낭주 정부가 60세 이상 유권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책
 - 60세 이상 시민에게 연 130링깃(약 3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 후 가족에게 장례 비용 1,000링깃(약 28만 원)을 지원
 - 페낭주 정부는 2009년부터 60세 이상 유권자를 지원하고자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2017년까지 총 16만 7,489명이 지원금을 수령
-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액션 플랜(Age-Friendly City Action Plan)
 - 페낭주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고자 액션 플랜을 시행
 - 고령자 친화 야외 공간 및 건물 조성,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정책, 고령친화 주택 부문, 사회 참여, 사회적 포용, 시민 참여와 고용, 소통과 정보, 공동체 지원과 건강 관리 등 여덟 가지 분야 발전을 목표로 설정
 - 사례 1: 아이르 이팜의 타만 크지라난 데사 마왈 공원(Taman Kejiranan Desa Mawar)
 - 페낭주 정부는 2022년 노인인구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용을 위해 공원 조성.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아울러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을 방지하고자 만남의 공간을 마련

- 사례 2: 무료 교통버스 확대와 버스 내 휠체어·자전거 탑승 설비 설치
 - 노인인구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 버스 CAT(Central Area Transit), BEST (Bridge Express Shuttle Transit), CAT 브릿지(CAT Bridge)를 운영
 - 3~6개 좌석에 휠체어와 자전거 탑승시설을 설치해 교통약자 이동을 돕고 노인 인구가 자전거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 3: 고령친화주택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2022년 12월 15일 폐낭주의회 고령친화주택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동적 노화를 위한 공용 주택(Independent living unit)과 의료진이 상주하는 요양주택(Assisted Living Units) 개발
- 사례 4: 고령자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며 은퇴자에게 공중화장실 청소나 공중화장실 요금 관리 등 일자리 제공
 -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를 국민주택사업 공동체 조직(Community Organization of People's Housing Project flat)에 위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주택사업 (PPR)²⁾ 거주민을 지원
- 사례 5: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배려한 애플리케이션 펄-원 터치 페낭
 - 페낭주 정부는 2023년 4월 엠페이(MPay)와 함께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펄-원터치 페낭(PEARL-One Touch Penang) 출시
 - 펄-원터치 페낭은 12개 카테고리, 112개 서비스를 제공
 - 페낭주 의회 행사 일정, 요양원과 병원 및 진료소 위치 안내, 수도세·전기세 온라인 납부, 긴급 전화, 공유 자전거 예약 등을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펄-원터치 페낭 (PEARL-One Touch Penang) 애플리케이션 출시



[그림 1] 고령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시된 애플리케이션(PEARL-One Touch Penang) (출처: MBPP)

2)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자치부가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공공주택 보급 프로그램(Program Perumahan Rakyat, PPR)으로 월 소득 4,850링깃(약 135만 원) 미만의 저소득 공직자 및 저소득층과 월 소득 4,850~10,959링깃(약 135~302만 원)의 중위 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 건설 계획



[그림 2] 사례 2(버스 내 자전거 탑승 설비)와 사례 4(고령자를 위한 공공일자리) 관련 사진 (출처: MBPP)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18/01/19/penang-raises-aid-for-over-170000-senior-citizens/>

<https://www.malaysiakini.com/columns/611598>

<https://www.mbpp.gov.my/en/services/bandar-mesra-usia?showall=1>

<https://www.therakyatpost.com/news/malaysia/2022/03/19/i-sejahtera-2022-phase-2-payment-review-starting-end-of-april/>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두 마리 토끼 잡는 전략적 중심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싱가포르 / 도시계획·주택

싱가포르는 도심과 전략적 중심지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노후 오피스 건축물을 복합용도로 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최근에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건설산업 전환 계획(건물의 친환경화, 디지털 전환 촉진)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도심 내 개발 인센티브 적용 건축물의 준수 의무규정을 신설 추가함

배경

-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중심업무지구와 전략적 중심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매력적인 도시를 재창조하기 위해 중심업무지구 인센티브(CBDI) 및 전략적 개발 인센티브(Strategic Development Incentive, 이하 SDI)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싱가포르는 향상된 건설산업 전환 계획(Enhanced Construction Industry Transformation Map, 이하 ITM)을 수립하고, 친환경 건축물, 전기차 상용화, 탄소 배출량 최소화 등을 구체적 목표로 하는 건설 산업계의 주요 전환을 추진 중
- 이에 싱가포르는 정부는 도심 내 ITM 현실화를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 중심지에 적용되는 인센티브 수혜 시 디벨로퍼 준수 의무 규정에 ITM의 핵심 내용을 통합하였음

싱가포르 내 전략적 중심지에 적용되는 인센티브 제도 주요 내용

- CBDI 및 SDI 인센티브 신청 요건
 - 위치 요건
 - 앞으로 복합용도 위주의 근린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에 따라 지정된 부지에 위치
 - 노후도 요건
 - 임시 소유권 승인(Temporary Occupation Permit, TOP¹⁾) 이후 최소 20년 이상 경과
 - 현재 활용 용도 요건
 - 현재 오피스 용도로 활용 중인 건축물
 - 최소 부지면적 요건

1) Temporary Occupation Permit

- 개발 후 결과의 품질을 위해 최소 부지면적 2,000㎡ 이상의 부지에만 인센티브 적용 가능(단 일부 부지²⁾는 부지면적 1,000㎡ 이상 충족 시 가능)
- CBDI 및 SDI 인센티브 혜택(사업 지역명 및 부지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 적용)
 - 앤슨(Anson) 지역, 세실 스트리트(Cecil Street) 지역의 경우
 - ‘1층에 상업 용도가 있는 주거용’으로 개발 시 최대 30% 추가 용적률 부여
 - ‘상업&주거용’ 또는 ‘호텔’ 용도로 개발 시 최대 25% 부여
 - 로빈슨 로드(Robinson Road), 셉톤 웨이(Shenton Way), 탄종 파가르(Tanjong Pagar)
 - 40%의 연면적이 비주거 용도로 도입된 상업지역(Commercial with 40% non-commercial)은 최대 25%
 - 상업&주거 용도지역, 호텔 용도지역은 최대 25%의 추가 용적률 부여

CBDI/SDI 인센티브 적용 수혜 시 준수 의무 규정

- CBDI 및 SDI 인센티브 수혜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에 ITM 계획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최근 추가되었음
 - 친환경 인증 표준(최소 Green Mark(GM) 플래티넘 초 저에너지 또는 일반적인 GM 프레임워크에 따른 표준) 준수
 - GM 인증 프레임워크에 따른 유지보수 용이성(Maintanability) 인증(Mt) 및 탄소 발자국(Whole life Carbon(Cn)) 인증 획득
 - 전기차(EVs) 충전 인프라 제공
 - 건물 에너지 소비량 저감을 위한 광전지(PV) 배치

시사점

- 서울시도 앞으로 넷제로 달성을 위한 친환경적 정비 및 건설 활성화와 낙후 도심 활성화의 과제를 동시에 당면하고 있는 상황임. 도심 활력과 친환경 개발 두 가지의 목표 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방안의 사례로 정책적 적용 가능성 시사

2) 코너에 위치한 부지, Anson 지역의 부지

<https://www.ura.gov.sg/Corporate/Guidelines/Circulars/dc22-03>

<https://www.ura.gov.sg/-/media/Corporate/Resources/Publications/Annual-Reports/PDFs/AnnualReport-2021-2022.pdf>

https://www.ura.gov.sg/-/media/Corporate/Guidelines/Development-control/Circulars/2022/Apr/dc22-03_Appendix-1_SDI.pdf

https://www.ura.gov.sg/-/media/Corporate/Guidelines/Development-control/Circulars/2022/Apr/dc22-03_Appendix-2_CBDI.pdf

이 지 은 통신원, jieun0441@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61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3년 10월 14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송도숙(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